

코리아와인챌린지 2020이 온다!

코리아와인챌린지(이하 KWC)는 국내에서 가장 명망 있는 국제적인 와인 컴퍼티션이다. 오는 6월 제 16회 대회를 앞두고 있는 KWC 2020은 이미 한창 진행 중이다. 연초부터 참가 신청이 시작됐고 세계 각국에서 KWC에 문을 두드리는 참가사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와인 업계의 빅 이벤트, KWC 2020 관련 뉴스들을 전한다. 글 신윤정

KWC 2020 홈페이지 리뉴얼 오픈 KWC 2020에 대한 준비는 지난해 말부터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다. 먼저 지난 12월에는 KWC 2020 홈페이지가 리뉴얼 오픈됐다. 그에 따라 해외에서도 쉽게 KWC의 소식을 듣고 참가 접수를 할 수 있게 됐다.

신규 심사위원 공개모집 KWC 사무국에서는 3월부터 심사위원단 선정 작업을 진행한다. KWC에는 통상 50명 안팎의 국내 톱 소믈리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하며, 기존 심사위원들의 추천을 통해 매회 신규 심사위원을 모집해 왔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공개모집을 통해 신규 심사위원들을 위촉했다. 실력 있는 소믈리에들을 모집할 수 있는 창구를 넓히고, 심사위원단 모집에 더욱 공정을 기하고자 함이다. 심사위원 공개모집은 3월 1일~20일까지이며, 모집 조건을 만족하는 소믈리에들은 이메일로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KWC 심사위원 모집 공고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후 심사위원단 리스트가 확보되면, 5월까지 심사 일정을 조율하고 심사위원단 오리엔테이션도 진행될 예정이다.



KWC 참가신청, 공식 접수일 전부터 문의 쇄도

지난 1월 23일, KWC 2020 접수 공식 오픈 일을 한 달 이상 앞두고 첫 참가 신청이 들어왔다. 지난 몇 년간 꾸준히 KWC에 참가하여 좋은 성적을 거둔 호주의 한 와이너리가 총 6종의 와인을 출품한 것이다. 또한 매달 발송되는 KWC 뉴스레터를 통하여 KWC 수상 혜택과 KWC 사무국의 활발한 홍보 활동을 지켜봐 온 와인 생산자들의 참가 문의도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 시장에 자신들의 브랜드와 와인의 퀄리티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 KWC 2020에 “반드시 참가할 예정”이라고 밝힌 와인 생산자들도 적지 않아, 올해 더욱 풍성한 KWC가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접수 및 심사 일정

KWC의 공식 접수는 3월 2일(월)부터 시작해 6월 3일(수)에 마감된다. 참가접수는 KWC 홈페이지를 비롯, 이메일, 팩스로도 가능하다. 총 2주간 이어지는 심사 일정은 예선과 결선으로 나누어진다. 예선은 6월 8일~12일까지이며, 예선을 통과한 와인은 15일~19일까지 결선 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후 최종 수상 와인들이 발표 된다.

- 홈페이지 <http://www.koreawinechallenge.com>
- 이메일 info@koreawinechallenge.com
- 팩스 02-396-0588

KWC 수상 혜택이 한 가득

KWC 수상 와인들에는 다양한 혜택들이 주어진다.



무료 지면 광고



KWC 수상 와인은 <Wine Review>에 무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트로피와 베스트 레드는 1페이지, 골드는 1/2 페이지, 실버와 브론즈는 1/4페이지의 지면이 할당된다.



KWC 수상와인은 SNS를 타고



KWC사무국은 웹사이트,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KWC 수상와인들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와인애호가들을 대상으로 KWC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다. KWC 서포터즈들은 KWC 관련 여러 행사에 참석하며, 자신들의 SNS 계정에 생생한 후기를 전달한다.



다채로운 KWC 기획기사가 매달



KWC의 심사과정과 수상 와인들은 <Wine Review>에 특집 편성으로 집중 조명되며, 이후로도 매달 다채로운 KWC 기획기사를 만날 수 있다. 일례로 매달 한 국가를 정해, 해당 국가의 와인 산지와 지역별 KWC 수상와인들을 총 정리하고 있다. 'Monthly Dr. Choi's 와인: 기분 좋은 와인', 'Korea Wine Challenge Great Contributors' 코너에서는 <Wine Review> 발행인이 엄선한 KWC 수상와인들이 소개된다. 이 외에도 KWC 수상 와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기획기사가 마련된다.



미수입 수상 와인 집중 케어



KWC 사무국에서는 수상 와인 중 미수입 와인들이 국내 수입되어 소비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쏟는다. <Wine Review>에 수입사를 찾는 수상와인들을 소개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수입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돕기도 한다. 실제로 KWC 수상 후 국내 수입된 와인들도 많다.



소비자들과의 접점, KWC 수상 와인 시음회

KWC 심사가 마무리되고 최종 수상 와인이 결정되면, 하반기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KWC 2020 수상 와인시음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9월 17일 대구의 와인바&레스토랑 인비노에서 KWC 2019 수상 와인 시음회 전국 릴레이 투어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 이어 10월 18일에는 전북 지역 와인 업계 관계자 및 전주 와인 아카데미 출신 와인애호가들을 대상으로 KWC 2019 수상 와인 시음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처럼 KWC 사무국에서는 KWC 수상와인들이 최대한 많은 소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상 와인 스티커와 홍보물 제작



KWC 사무국에서는 수상 와인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와인 병에 부착하는 수상 스티커나 홍보물도 제작한다. 수상 스티커가 부착된 와인은 여러 와인 속에서도 소비자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다.